

‘2019 한·영 언론 세미나’ 개최 세계 언론의 공통 관심사는 ‘언론 자유·신뢰 확보·가짜 뉴스 퇴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주한영국대사관은 지난 3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2019 한영 언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 신뢰도 구축, 가짜 뉴스와의 전쟁 등 세계 주요 미디어 이슈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가짜 뉴스와의 전쟁 등 각종 언론 이슈들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은 기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많은 폭력과 학대가 행해진 연도”라며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어진 첫 세션에서는 조나단 먼로(Jonathan Munro) BBC 뉴스 취재 및 보도 총괄본부장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발제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제혁 KBS 국제협력부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사,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언론 상황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은령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센터장이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대응 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앤드류 윌슨(Andrew Wilson) 스카이 뉴스 전임 앵커, 김필규 JTBC 앵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9 한·영 언론세미나 프로그램
‘디지털시대 저널리즘의 미래’에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조나단 먼로 BBC뉴스 취재 및 보도
총괄본부장,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정제혁 KBS국제협력부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